

본사 주최 제15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단체·개인전 우승 포스코팀 정장효씨

“광양 바둑 매운 맛 보여줘 기쁩니다”

“광양 바둑의 저력을 보여줘서 기쁩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15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 2관왕을 차지한 포스코팀 정장효(42)씨는 “대회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는데도 운이 따랐는지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싸늘이 할줄 생각도 못해”

개인전 3위를 차지한 포스코 팀 주장 박광주(50)씨는 “단체전 3위 정도에는 입상

할 수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싸늘이 할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전 4위 유병수(42)씨는 “개인전에서는 비록 입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팀이 우승을 해 기쁘다”며 “일주일에 2~3번 정도 바둑을 꾸준히 둔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제철 직원들로 구성된 포스코 팀은 올해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스위스 리그에서 단체전 성적이 전체 12전 가운데 11승1패로 가장 높아 우승했다. 팀원인 정장효·유병수씨는 4전 전승을 거뒀고, 박씨가 1패를 안았을 뿐이다. 셋 다 아마 4~5

단의 실력을 갖춘 고수들이다. 2관왕 정씨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바둑대회, 지역 자치단체에서 여는 대회, 기원에서 여는 대회 등 광양에서는 바둑대회가 자주 열려 자주 참가하고 있다”며 “5년여 만에 참가한 광일배 바둑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번 대회에서 단체·개인전 통틀어 6전 전승을 기록했다. 이들은 광일배 바둑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오다 5년여 전부터 개인 사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 정씨의 경우 5년 전 광일배 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이

바둑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 남짓이지만 팀을 결성해 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 4~5단 실력 갖춘 고수

유병수씨는 “광양은 포스코 내에 기원이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바둑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다”며 “광주까지 와서 광양 바둑의 매서운 맛을 보여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15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포스코 팀이 우승이 확정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주·유병수씨, 개인전 우승자 정장효씨.

해남 두륜산 자락 부녀회 산야초 찻집 ‘덕흥다원’ 열려



해남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현산면 덕흥리 부녀회원들이 산야초차를 만들기 위해 조릿대를 채취하고 있다.

천년고찰 대흥사가 자리 잡고 있는 두륜산 자락 두메산골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에 최근 문을 연 야생초 찻집 ‘덕흥다원’이 화제가 되고있다. 이 다원은 덕흥리 부녀회원 33명이 오묘되지 않는 땅, 깊은 산골에서 자생하는 산야초를 직접 채취해 친환경 차와 산나물을 만들어 내면서 차 마니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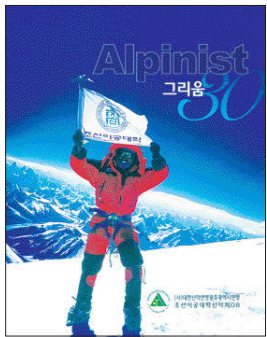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다원은 그야말로 산골 아니면 채취가 불가능하고 은근한 향기와 독특한 맛을 지닌 ‘조릿대차’와 ‘감잎차’, ‘속차’, ‘백화차’ 등을 만들어 내고있다.

특히 조릿대차는 이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밭을 짓기 전 쌓여 쉬인 돌 등 이물질을 이는데 쓰는 기구인 조릿대를 팔아 쌀을 사고 자녀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낼 밑천을 만들었다.

두륜산 자락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 산감잎을 따 만든 감잎차도 일품이다. 어린 싹을 뜯어 만들어 낸 속차와 꽃차, 아카시아꽃, 쫄래꽃 등을 섞어 만든 ‘백화차’는 다른 지역 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덕흥리 부녀회장으로 이 다원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선자(49)씨는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의 유용 노동력을 활용,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야초 차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 모두가 나서 싹을 캐고 산감잎을 직접 채취해 하나 하나 정성 들여 가공하고 있는 이 덕흥다원 차는 정말 보약같은 차”라고 자랑했다.

조선이공대 산악회 ‘알피니스트-그리움 30’ 퍼내



조선이공대학 산악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등반 성과를 모은 기념자료집 ‘알피니스트-그리움 30’을 최근 펴냈다.

자료집에는 ▲사진으로 본 30년 ▲개척 등반 ▲해외원정 ▲하얀 산의 품에 묻힌 산우(故 정성백)에 대한 회상 ▲알피니스트 에세이 등을 통해, 30년간 산악회가 흘린 땀과 눈물, 좌절과 고통을 되짚어 한화와 보람 등 생생한 산행기록이 감동적인 글과 현장감 넘치는 사진으로 꼼꼼하게 실려있다. 산악회OB는 자족연 및 출판기념회를 지난 20일 오후 6시 상무리초 컨벤션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가졌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별세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누구?

한국인 최초 유엔 전문기구 수장 세계인 건강·복지 쟁건 ‘수호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수장, 유엔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서있던 인물이다.

그는 2003년 7월21일 WHO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WHO는 연간 예산 22억달러(약 2조6천400억원), 전문 직원 5천여명에 이르는 유엔 산하 최대 국제기구다.

여기에서 이 총장은 에이즈와 결핵 등 질병의 퇴치와 예방, 세계 각국의 보건통계 및 보건외교 행정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인의 건강과 복지 관련 일을 도맡아 총괄했다.

제네바 외교가에서는 이 총장이 코피 아난을 뒤이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

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총장이 오는 7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것도 그의 비중을 말해준다.

그는 재임 기간 특히 전세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서울 경복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하와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 평생의 의료봉사활동에 힘썼다.

이 총장은 서울대 의대 재학 시절 경기 안양시 나자로 마을에서 한센 병 환자들을 돌봤고, 이곳에서 가톨릭 신자로 봉사활동차 한국을 찾은 동갑내기 일본인 레이코를 만나 결혼했다. WHO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1983년 피지에서 WHO 남태평양지역 사무처 나방퇴치담당으로 근무하면서부터였다.



이후 WHO 남태평양지역 사무처 질병예방관리국장, 예방백신사업국장 등을 거쳐 결핵관리국장으로 있으면서 2003년 1월말 7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WHO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예방백신 사업국장 시절 소아마비 유행률을 세계인구 1만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올려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베컴부부, 이번엔 호화파티 구설수

영 월드컵 출전 기념 자선기금 모금 명분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주장 데이비드 베컴 부부가 21일 밤 월드컵 출전을 기념하는 30만 파운드짜리 호화판 자선 파티를 열어 구설수에 올랐다.

300만 파운드(약 53억6천만원)의 자선기금을 모은다는 것이 이날 파티의 명분.

장소는 런던 북부 하드포스셔에 있는 일명 ‘베컴 궁전’, 파티 비용만 30만 파운드가 들었다. 인기 요리 프로그램 ‘헬스 키친’을 진행하는 요리사 고든 램지가 음식을 맡았고, 7만5천 파운드짜리 샴페인, 오렌지 나무가 스페인에서 공수됐으며, 60명의 경호원이 동원됐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 비행기



3대가 에어쇼를 펼친다는 말이 돌았으나 월드컵 개최지가 독일이라는 점에서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 헤비메탈 가수 오지 오스본, 축구선수 웨인 루니와 여자친구 킬린 맥리플린, 영화배우 이완 맥그리거, 사라 퍼거슨 전 왕자비, 팍스타 로비 윌리엄스 등 유명인사 350여 명이 참석했다.

명맥품을 판 수익금은 베컴이 운영하는 장애아 휠체어 지원 단체와 유니세프, 양세자트러스트, 세 곳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채규인씨, 佛 명품 ‘디오르’ 디자이너로 활약



세계 최정상급 패션하우스인 크리스티안 디오르에서 한국인 디자이너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 여름 프랑스로 건너와 학업을 마치고 지금은 일선 디자이너로 맹활약중인 채규인(36) 씨.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자기 브랜드로도 명성을 자랑하는 존 갈리야노(John Galliano)에게 발탁돼

2002년 봄부터 함께 일하고 있다. 갈리아노의 이름으로 출품되는 옷들 가운데 일부는 그가 디자인한 것들이다.

그의 작품은 이미 몇 차례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각종 패션계에서 교과서처럼 통용되는 자료집에도 여기저기 실려 실용화되고 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

와 뉴욕에서 충분히 인정받은 그는 이제 서서히 자기 브랜드를 준비중이다. 그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여차피 자기 이름을 걸고 가야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길이라면 지금쯤 나서 보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동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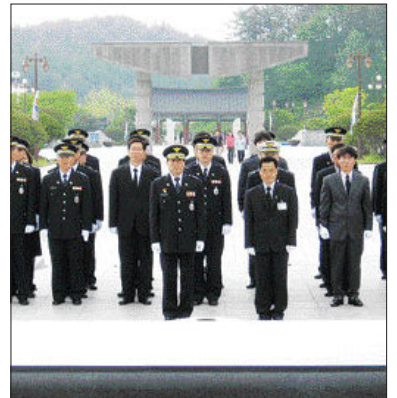
‘한·중 민간차원’ 집담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장 오재일)은 2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중국 북경대학 리징평(李景平) 교수를 초청, 한·중간 민간차원의 교류방안 등을 주제로 집담회를 갖는다.

리교수는 북경정치학회 부회장·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동부경찰서 직원 5·18 참배



광주 동부경찰서 천승범 서장과 직원 50여명은 22일 5·18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동부경찰서 제공)

한국스카우트 ‘청소년 축제’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연맹장 서재익)은 21일 금호 패밀리랜드에서 대원 및 지도자·학부모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위적림기자rjw@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재수(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씨 장남 동범군 입학혜사 4녀 제현양=27일(토) 오후 2시 광주주진교회.
▲김성근(광주시 상수도본부 기술부장)씨 장남 지훈군 모경섭씨 장녀 최정양=27일(토) 낮 12시 예벌루선생원컨벤션 3층 컨벤션홀.
▲이양래씨 차남 신구(중앙그릇도매센터)군 오정운씨 차녀 은경양=27일(토) 오후 1시3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주기중(신성병원·대전시립정신병원 원장)씨 차남 영세군 김고수(서문인쇄사)씨 장녀 태희양=2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 ▲광주성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밀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종친회

- ▲연안차씨 종친회(회장 차호철) 광주전남 지부 정기총회=6월 3일

(토) 오전 11시 신성식당 232-0177

모임

-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광주지부(지부장 이건호) 월례회=25일(토) 오후 3시 지부사무실 673-4040

모집

-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30일까지 선착순 등록. 교육기간은 6월7일~7월6일까지 주 2회(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총 64시간. 문의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654-1366
▲광주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5월27일까지 광주YMCA 전지회에서 접수. 악기경력 3년

이상 또는 스키 5권 이상인 초등 3년~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28일 오전. 참가비 1만5천원.

- ▲광주월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엄마학교 참여자 모집=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고교 1~2학년 대상, 속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상담,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필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야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거래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풋자리를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전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전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블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

째 금요일 011-607-0347

-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 농지임대 신청자 모집=도시 거주자 및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 수탁 관리 http://www.fbo.or.kr061-320-5222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시 가능. 0505-206-0106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

1188

부음

- ▲곰담씨 별세 이송(전 광주일보 주필·전 광남일보 사장·현 동신대 객원교수)·이백(전 광주시의회의 사국장)·수송(사업)·수백(경주시 공한의원)·호송(대원명주 대표)·호백(해강종합건설 사장)씨 부친상 김재홍(전 동성여중 교장)씨 빙부상=발인 24일(수) 오전 10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20-6981
▲나상렬(전교육장)씨 별세 창업·수업·정재씨 부친상=발인 23일(화)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31-8901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길모듬별반양
문의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신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